

차로 마시면 우울증·불면증에도 효과

부부금실을 좋게 하는 자귀나무

바쁜 일상에 주위를 둘러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도시인이라도 잠깐 눈을 돌려보면 주위에 다양한 식물들의 색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자귀나무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심지만 그리 많이 알려진 식물이 아니다보니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귀나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 색연 김원화(의학전문기자)

미모사처럼 밤에는 잎이 움츠러들어

언제부터인가 집 주위의 오동나무 꽃이 자취를 감추고 자귀나무 꽃이 반갑게 맞아준다. 오동나무 꽃도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지만 자귀나무 꽃은 여름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반기는 듯해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자귀나무 꽃은 독특하게 생겼다. 분홍색과 흰 색이 조화를 이뤄 공작새의 날개처럼 퍼진 수꽃과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암꽃이 이국적이다.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닌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자생식물이다. 향기도 달콤하다. 자귀나무의 잎은 아카시아의 잎과 닮았는데, 밤이 되면 작은 잎이 모두 오므라든다. 미모사 잎 손으로 건드리면 움츠러드는데, 세포에 많은 물을 저장해서 쫄쫄했던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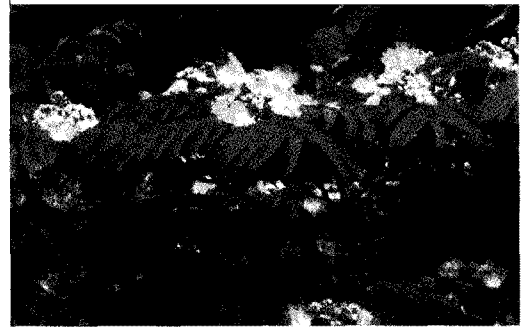
자극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팽압이 감소해 잎이 닫히게 된다. 이것을 수면운동이라 한다. 자귀나무의 수면운동은 외부의 자극 없이 일어난다. 잎이 큰 나무는 폭풍우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잎을 움츠려 방어 태세를 취하기도 하고, 양분을 만들 수 없는 밤에는 잎 표면적을 줄여 에너지 발산을 최소화한다. 자귀나무 깃꼴 잎의 개수는 짝수여서 잎을 닫을 때면 홀로 남는 잎이 없다. 자귀나무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합환목, 합흔수(흔인으로 합쳐지는 나무), 야합수(밤에 합쳐지는 나무), 유정수(정(精)이 많이 드는 나무) 같은 여러 이름을 갖게 됐다. 신흔부부는 이 나무를 심어 부부의 금실이 좋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자귀나무 줄기로 절구공이를 만들어 부엌에 두고 쓰면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에서도 자귀나무를 뜯어 심으면 미움이 사라진다고 믿었고, 친구의 노여움을 풀려고 할 때는 잎을 따서 보냈다고 한다. 한결 같이 친분을 두텁게 해주는 꽃이라는 이미지다.

콩과 식물이다 그렇듯이 자귀나무도 가을이 되면 꼬투리를 매다는데, 이 자귀나무가 바람에 부딪혀 내는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거슬리게 한다. 여설목(여자의 혀와 같은 나무)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자귀나무는 소가 무척 좋아해서 소쌀나무나 소밥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서양에서는 실크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꽃차는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에 이용

자귀나무의 껍질은 민간과 한방에서 약으로 쓴다. 종기나 습진, 짓무른 데, 타박상 등 피부병이나 외과질병 치료에도 효력이 있다. 껍질을 부드럽게 가루 내어 참기름에 개어 아픈 부위에 붙이면 잘 낫는다고 했다. 상처가 깊어서 잘 낫지 않는 데에는 자귀나무 껍질 가루를 뿌린다. 가루 내어 먹으면 요통, 타박상 어혈, 기생충증 등에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한다. 껍질을 가루 내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귀나무 잎을 태워 고약을 만들어 골절 치료에 이용하기도 했다. 뼈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자귀나무 잎을 태운 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섞어 고약을 만들어 붙이면 낫는다고 했다.

자귀나무 꽃도 약으로 쓴다. 자귀나무 꽃은 기관지염, 천식, 불면증, 임파선염, 폐렴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말린꽃을 먹을 때에는 한 되 정도의 물에 꽃잎 한줌을 넣고 달여서 그 물을 마신다. 자귀나무는 산중수도자들이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즐겨 먹었다고 한다. 스님들은 자귀나무 껍질을 흐르는 물에 5일쯤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 가루 낸 것을 한 번에 밥술갈로 하나씩, 하루 세 번 밥 먹고 나서 먹었다. 오래 복용하면 몸이 나는 듯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무쇠처럼 튼튼해지며 오



랫동안 달려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독성이 없는 약이어서 오래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사찰에서는 자귀나무의 잎을 향의 대용으로 태우기도 했다. 자귀나무의 열매도 말려 불에 볶아서 약용으로 이용했다. 자귀나무 잎을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는데 늘 먹으면 부부 사이의 금실이 좋아져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밤에 잎이 모아진다는 나무의 특성뿐만 아니라 약차의 효능에서도 부부금실을 좋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자귀나무의 효과를 알고 가족과 함께 자귀나무차를 마신다면 가정의 화목이 저절로 이뤄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가공이 쉬우며,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자귀나무

자귀나무는 가지에 털이나 가시 없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노인들 지팡이나 아이들의 각종 공작도로 이용됐다. 큰 목재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가공이 쉬워 간단한 가구를 만들거나 조각하는 재료로도 쓰인다.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가로수 및 정원의 관상수로 흔히 심는다. 여름철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핀 자귀나무 꽃은 한순간 마음을 들뜨게 한다. 요즘 꽃이 활짝 핀 자귀나무 길을 지나면서 먼 곳을 다녀왔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먼 곳을 돌아온 친구를 반겨주는 자귀나무 꽃은 머지않아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닌 유쾌한 속삭임이 될 것만 같다. 화사한 꽃 몇 송이를 채취해 차로 만들어 마신다면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